

1.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becoming a member of Suwanee Full Gospel Church.
2.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은(11/23) 새생명 전도축제로 드립니다.
나눠드린 태신자 작성카드 및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e "Evangelism Commitment Card" for Thanksgiving Sunday.
3. 새벽기도와 금요성령대망회에 많이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삼일조 새벽기도회는 14일~16일(화~목)입니다.
Let us be a church devoted to prayer through the early morning service and the Friday Service.
4. 애찬표와 헌화표가 성전 입구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원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1구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주(9/28) 애찬은 2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까?
Donation sign-up sheets for our Lunch Ministry and Floral Offering are on the bulletin.
5.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항상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our senior pastor and the church.

W

2025년도 후원 선교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1. 필리핀 - 아시아중앙교회(ACC, 윤필립 선교사)
 2. 일본 - 고베 그레이스하모니교회(신동훈 선교사)
- 자세한 기도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 봉사

날짜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봉사
9/28	이재영 목사	김샌디 권사	YOUTH(이권)
10/5	정래열 장로	신승란 권사	양순탄 권사
10/12	신해승 장로	박제니 집사	양순탄 권사

< 10월 안내 및 헌금 봉사자 - 양순탄 권사 >

* 봉사자와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10:15am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Volunteers, please arrive by 10:15am, prepare with prayer, and begin your service.

2025년 9월 21일 [제 39권 38호]

2025

성령님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UP GO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Song of Songs 2:10)



예배시간 안내

새벽예배 Morning Prayer Service	화 ~ 금 6:00 AM
주일예배 1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위성) Sunday Service, 1st	8:00 AM
주일예배 2부 Sunday Service, 2nd	10:40 AM
금요성령대망회 Friday Service	8:00 PM
주일학교 Sunday School	11:00 AM
Youth 예배 Youth Service	매월 2,4째주 11:00 AM
방송설교 Broadcast	(YOUTUBE - 유튜브 생방송) (주일, 새벽예배 Every Sunday, Mornig Prayer Service)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핵심가치

- ①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통한 불변의 진리
- ② 순복음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변하지 않는 사랑
- ③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있는 믿음
- ④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함
- ⑤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길
- ⑥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되는 끊임없는 기도
- ⑦ 성령충만을 통한 능력과 복음전파 (전도, 선교)

2025년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실천사항

- 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 ②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헌신과 봉사를 이루자
- ③ 확실있는 믿음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내는 모범을 이루자
- ④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계속되는 도전을 이루자
- ⑤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의 길을 위해 훈련하자
- ⑥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한 주님과와의 소통을 이루자
- ⑦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자

3268 Smithtown Rd Suwanee GA 30024

TEL : 770. 945.4447 C.P : 630.746.3197

www.suwaneechurch.org

예배로 부르심 Invocation	다함께 Altogether
찬 송 Hymn	8장 Hymm No. 8 거룩 거룩 거룩 (4절) 다함께 Altogether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Altogether
찬 송 Hymn	찬 304장 (통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께 Altogether
대표기도 Prayer	정대섭 목사 Rev. D. S. Jeong
함께 부르는 찬양 Anthem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함께 Al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부 - 요한복음(Jn.) 9:13~17 2부 - 창세기(Gen.) 15:1~6 다함께 Altogether
설 교 Sermon	1부 - 영적인 맹인 Spiritually Blind 2부 -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1부 - 이영훈 목사 Rev. Y. H. Lee 2부 - 담임목사 Senior Pastor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양순탄 권사 Sr. Deaconess. Yang
헌 금 송 Offering Praise	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함께 Altogether
광 고 Announcement	담임목사 Senior Pastor
주기도송 The Lord's Prayer	다함께 Altogether
축 도 Benediction	주기도송(635) The Lord's Prayer 담임목사 Senior Pastor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S s

words & Music by 현석주

A E7/G# F#m AM7/E D A/C# Bm Esus4 E7

아 무- 것 도 두 려워 말라 주 나 의 하 나 님이 지 켜 주 시 네 -

Bm E C#m F#m Bm E7 1. A D/E 2. A A7

놀 라 지 마라 - 겁 내 지 마라 - 주 님 나를 지 켜 주 시 네 -

D E/D C#m F#m D E7 A G/A A7

내 맘 이 힘 에 겨워 지 칠 지라 도 주 님 나를 지 켜 주 시 네

D E/D C#m F#m F#m/E D B7 D/E E7

세 상 의 험 한 풍파 몰 아 칠 때 도 주 님 나를 지 켜 주 시 네 -

A C#m/F# F#m F#7 Bm B7 D/E E7

주 님 은 나 의 산 성 주 님 은 나 의 요 새

A C#m/F# F#m F#7 Bm E7 A

주 님 은 나 의 소 망 나 의 힘이 되 신 여 호 와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다함께
Hymn Altogether

설교 담임목사
Sermon Senior Pastor

합심기도 다함께
Prayer Altogether

축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오늘의 양식 Today's Word

허무 속에서 배우는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일까요? 선량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정직한 삶을 살아도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공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기쁨과 아픔, 성공과 실패 모두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깨달음은 처음엔 허무하게 다가오지만, 바로 이 허무함이 지금 이 순간의 귀중함을 일깨웁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유일함과 귀중함을 포착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행인의 발걸음, 비둘기의 날갯짓, 웅덩이에 비친 그림자까지도 그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보석 같은 순간이었습니

다. 지혜로운 사람은 허무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을 통해 현재를 더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식사,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길에서 건넌 작은 친절,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실은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입니다. 이 순간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빛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순간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무를 넘어선 삶의 지혜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늘의 양식”에서

Schedule - 성경통독 및 일정



2025년 전성도 성경 2독 (매일 구약 6장, 신약 2장)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9/27(토)	9/28(주일)
시 67~72 살전 5	시 73~78 살후 1~2	시 79~84 살후 3	시 85~90 딤후 1~2	시 91~96 딤후 3~4	시 97~102 딤후 5~6	시 103~108 딤후 1~2

날짜	10/5 (주일)	10/12(주일)
내용	성찬주일예배	선교헌금주일
장소	교회	교회

비록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앞선 박해 시대에서 유래한 교회 내부의 여러 갈등이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치하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협했던 첫 번째 문제,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 살펴보자.

1. 배경

콘스탄티누스가 서방의 황제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지역에 위치한 카르타고 교회는 부주교 카이킬리아누스를 주교로 선출하려 했다. 그런데 누미디아 지역 다른 도시들의 주교들은 카이킬리아누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배교자였던 펠릭스 주교(압통기 교회)에게 서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배교자에게 안수 받아 주교가 된 카이킬리아누스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요리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주교로 세웠으며 313년 여름에는 마요리누스의 뒤를 이어 다시 도나투스를 주교로 추대했다.

2. 도나투스파

카르타고 교회의 주교로 부임한 도나투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한 후 당시 카르타고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카이킬리아누스 측보다 앞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그 사안이란 다름 아니라 밀라노협약에 의거해 박해시대에 몰수당했던 교회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일이었다. 도나투스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도나투스파는 재빠르게 북아프리카의 총독 아닐라누스를 통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고 갈리아 지역(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독일 서쪽 일부 오스트리아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 주교들에게 법적·신학적 검토와 지지를 부탁했다.

3. 교회회의 소집

1) 로마 교회회의

도나투스파의 기대와는 달리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편파적이지 않게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주교 밀티아데스와 세 명의 갈리아 지역의 주교들 그리고 북이탈리아 지역의 주교 15명이 포함된 로마 교회 회의가 소집됐다. 교회 회의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이킬리아누스가 받은 서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2) 아를(Arles) 교회회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도나투스파는 다시 황제에게 호소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4년 여름에 당시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서방 전 지역 교회 대표들을 '아를'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 교회회의를 열었다. 황제가 소집한 첫 번째 교회회의였다. 황제는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한 도나투스논쟁을 결판내기 원했다. 원근각처에서

황제로부터 넉넉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소집된 주교들은 박해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황제의 태도에 크게 감동했고 의제 해결에 대한 황제의 의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 했다. 숙고 끝에 아를 교회회의는 로마 교회회의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카이킬리아누스가 받은 서품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임명된 주교의 유효성은 '서품'이라는 의식에 있는 것이지 서품을 베푸는 자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박해에 못 이겨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받은 침례가 삼위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베풀어진 것이라면 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교회법의 기초가 되었다.

4. 계속되는 도나투스파의 불복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들은 아를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계속해서 황제에게 문제를 읊소했다. 더이상 교회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된 황제는 그들을 밀라노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북아프리카 교회는 분열되었다. 이후 도나투스파들은 '분리주의자들'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난 후에도 다양한 역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5. 논쟁의 종결

1) 아우구스티누스

논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파의 수는 정통교회보다 많았으며 자신들만이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하며 제국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다. 도나투스파 교회는 과격한 정치 투쟁 단체(키르쿰 켈리오네스)와 연합하여 대지주의 소유물을 약탈하고 정통교회를 방화하는 등 사회적 문젯거리가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이자 카르타고의 수석대주교인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도나투스파와의 신학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2) 신학적 근거

도나투스파는 배교나 중죄로 성령을 잃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베푸는 성례전만이 구원의 효력을 보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면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중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중요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송수관이 금이나 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샘물이 얼마나 맑으냐가 중요한 것과 같은 것처럼 성례전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했다.

3) 100년 만에 이룬 결말

4세기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마련한 법에 따라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국가의 난폭한 진압이 시작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호소를 통해 많은 도나투스파 사람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결국 412년 호노리우스 황제의 칙령과 계속된 국가적 조치들로 인해 도나투스파는 세상과 격리되면서 소멸되어갔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부터 북아프리카 정통교회 역시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나투스 논쟁의 결과에 따르면 참된 교회란 이미 거룩해진 또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격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